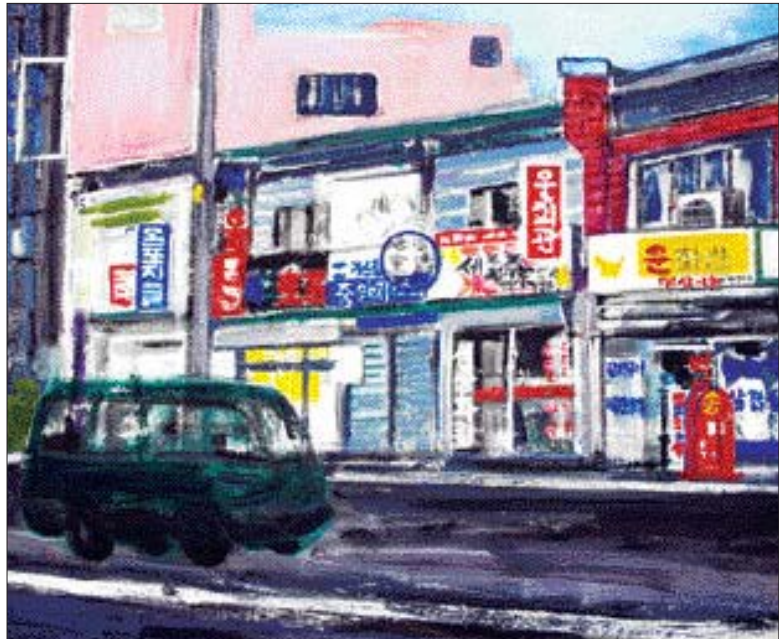


유달산... 삼학도... 용해동 갯바위...
목포, 미술로 되살아 난다

'목포그리기...' 기획전 31일까지 서울대 우석홀
1년간 현장답사·워크숍... 사진·비디오 작품도

목포 오거리, 유달산 일대 일본식
목조 건물, 삼학도, 용해동 갯바위...
현대와 물결에 사라졌던 목포의 옛
공간이 캔버스에서 되살아난다.

워크숍을 통해 목포의 근현대사를 탐
구했고 회화와 설치작품,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로 목포를 형상화 했다.
이번 전시에서 사진작가 김보경씨
는 유달산 일대의 옛 도심에 카메라
영글에 담은 '목포로부터'를, 목포가
고향인 심철웅 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찾아가는 과정을 비디오로 형상화한
'생가 찾기'를 각각 전시한다.



서용선 작 '목포상가'



김천일 작 '갯바위 마을'

대화·상수유... 봄소식

국중효교수 6년만에 개인전

서양화가 국중효 교수(목포대 미대)가 대화, 산
수유 등 봄꽃을 화폭에 담아 6년 만에 개인전을 연
다. 18~2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봄의 소리'

개인전과 전남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무등회 회
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1630.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

19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서 공연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단장 성심은·전
남대 국악과 교수)이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제 16회 정기연주회를 갖
는다.

중견 문인 나란히 시집 내

이은봉씨 등단 25주년 '책바위'... 문정희씨 영역본 출간 기념 '필레'

문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시인 이은봉(광주대 문예창작
학과)교수와 문정희(고려대 문예창
작학과)교수가 나란히 시집을 발표
했다.



올해로 등단 25년을 맞이한 이은
봉 교수는 최근 7번째 시집 '책바위'
(천년의 시작)를 펴냈다. 시집은 자
연을 벗삼아 공부하는 선비의 넉넉
한 마음이 느껴지는 차분한 어조로
우리 삶을 이야기 했다.

68권이 실린 시집에는 '밤 빛소리',
'집은 의자' 등 일상의 소소한 풍경부
터 '뚝은 처음 자신을 배춧잎으로 알
았다' 등 혼탁한 세상의 풍경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세세한 감정들을 담았
다.



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병과 가
자지' 등에서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시적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가 하
면 사물의 겉과 속은 물론 존재의 본
질 등 대상의 양면성도 밀도 있게 다
뤈다.

이 시집은 출간 당시 KBS TV 9
시 뉴스가 조사한 청소년들이 사랑
하는 한국의 예술시집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이 교수는 1983년 '삶의 문학'을 통해 평론가로, 이
듬해 '창작과 비평'에 '마침내 시인이라'를 발표해 등
단했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문 교수는 40
여 년 동안 11권의 시집을 포함, 서른 권에 가까운 저
서를 내며 현대문학사, 소설사문학사, 정지용문학사
등을 각종 문학상을 수상했다.

지난 1986년 발간됐던 시집 '필
레'가 최근 미국에서 '윈드 플라워
(Wind Flower)'라는 제목으로 영
역 출간된 것을 기념해 복간한 것
이다. 또 올 가을에는 스페인어로,
내년에는 프랑스어와 일본어로 각
각 펴낼 예정이다.

시집은 문 교수가 80년대 초반
낯선 도시인 뉴욕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고독한 감정을 비롯해
젊은 날의 기록이 담겨있다.

시집은 문 교수가 80년대 초반
낯선 도시인 뉴욕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고독한 감정을 비롯해
젊은 날의 기록이 담겨있다.

이 시집은 출간 당시 KBS TV 9
시 뉴스가 조사한 청소년들이 사랑
하는 한국의 예술시집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이 시집은 출간 당시 KBS TV 9
시 뉴스가 조사한 청소년들이 사랑
하는 한국의 예술시집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다.

강원도 원주 '토지문학공원' 시 창작 교실

대하소설 '토지'의 산실인 강원도 원주시 토지문학
공원이 시 창작 교실을 마련했다.
이번 창작교실은 오는 4월 5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토지문학공원에서 시인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의는 현재 고려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중인 문정희 시인이 맡는다.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토지문학공
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원. 문의 033-
762-6843.

인터넷, 언론 영향력 '기대 이하'

美 언론개선연구소 "언론 종사자는 줄어"

인터넷이 언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만큼은 아니라는 연구 보고결과가 나왔다.
한때 인터넷은 언론매체를 민주화시킬 것으로 예상했
다. 인터넷은 기성 언론계에 새로운 목소리와 이야기, 시
각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의
신문과 텔레비전, 온라인 매체가 다른 뉴스의 4분의 1 이
상이 이라크전과 대통령 선거에 집중된 것으로 미국의 언
론개선 연구소인 PEJ가 16일 밝혔다. PEJ는 이날 미 언
론매체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다.

나라의 뉴스들이 전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에 그쳤다. 그러나 독자들이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자
신들이 원하는 뉴스를 찾아가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
는 점은 언론산업이 앞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전통적 의미에서의 뉴스에 대한 독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언론사 요원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고 PEJ의 톰 로렌스 최고경영자는 전했다.

NBC 방송이 백악관 출입기자인 데이비드 그레고리에
게 저널리즘의 영웅으로 묘사되도록 한 것은 이런 경
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 사람이 예전보다 더 많
은 역할을 맡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Movie advertisement section titled '영화안내' (Movie Guide) with columns for Megabox, Enter Cinema, Columbus Cinema, Seniors Grand, and Zeil Cinema, listing various films and showtimes.